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정 봉 현*

목 차

I. 서론	IV.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기독교
II.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의 이해	선교정책의 과제
III.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내용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 및 사역의 관점에서 기독교 선교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들은 서론,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기독교 선교정책의 과제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특징들은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가속,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 가족공동체와 다음 세대의 위기 및 선교적 동력의 위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선교사역의 입장에서 선교정책의 과제들은 교회 공공성의 회복과 강화, 교회 사회적 소통능력의 제고, 이단집단 종합 근본대책의 마련, 가정의 회복과 가정사역의 강화, 미자립 소형교회의 지원 확대, 생활신앙의 성숙도 향상, 재택·원격근무, 재택수업 방식의 선교분야 활용, 성육신적 선교의 실행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교전략의 측면에서 선교정책의 과제에는 비대면 시대 on & off line 교회사역, 디지털·아날로그 공동사역, 다음세대 중심 가정사역의 교회, 교회 디지털 선교역량의 제고, 교회론과 제자도의 재발견, 해외 거점·토착화 선교방식, 해외 지원선교 역할의 강화 및 선교현장의 국내 영역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시대 선교정책의 과제

* 전남대학교 교수

논문접수일 : 2020. 12. 01., 논문심사일 : 2020. 12. 09., 게재확정일 : 2020. 12. 10.

I. 서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폐렴 환자가 2019년 12월 8일에 보고된 이후에 중국정부는 2020년 1월 7일에 코로나19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사태(PHEIC)를 선포했고, 코로나19가 110개국 정도에 퍼지면서 팬데믹(Pandemic)상황을 선포했다. 202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220개국에서 약 78,549천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1,743.4천 명이 사망했고, 국내에서 56,872명이 확진환자가 생겼고 총사망자는 808명에 달했다¹⁾. 2020년 9월 영국 남부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을 지나 아시아, 북미까지 번지며,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40여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1주간 일평균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쏟아져서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하다. 방역당국도 2021년 1월 3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다양하고 강력한 방역관리대책들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전세계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 심각한 타격과 악영향을 초래했다. 코로나19가 인류사회에 끼친 영향들은 일상생활, 의사소통, 회의문화, 교육형태, 실물경제, 신앙생활, 국제정세 및 교회의 목회·선교 등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유발하였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을 유발하며, 미래에도 종식되지 않고 인류역사와 영원히 함께하는 계절적 풍토병으로 정착될 것이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 현장예배와 활동이 금지 및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무증상 및 광범위한 감염은 인간사회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력한 봉쇄조치를 수반했다. 강력한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추세는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파력이 강하여 감염률이 매우 높고, 광범위한 감염률로 인해 희생자가 급증하여 더욱 심각한 감염병이다. 무증상 환자의 전파력이 강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정착화되며, 시민의 불안과 두려움이 극대화되어 있다²⁾.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는 코로나 우울증(Corona blue)을 확산시킨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은 전통적인 교회 예배와

1)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2.24.), <https://ncov.mohw.go.kr/>

2) 이종원 (202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대학과선교 제45집 특집논문, p.65.

모임의 대면접촉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교회의 비대면 예배형태가 정착되며, 비대면 시대와 디지털사회의 진입에 적응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환경에 총체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비대면 선교사역과 디지털 선교역량을 강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선교환경의 총체적인 변화내용을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선교사역 및 전략의 입장에서 기독교 선교정책의 과제를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들은 서론,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선교정책의 과제,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의 이해

1. 감염병과 교회의 관계

인류역사에서 감염병은 돌발적이며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 경제와 개인 생활 환경 등 인간사의 전반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였다³⁾. 초대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로마제국에 창궐한 감염병은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⁴⁾.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성도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몸 혹은 하나님의 전으로 비유된다. 초대교회에서 감염병이 유행해도 이웃환자를 돌보며 기쁨으로 간호하여 이방인을 감동시켰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삶을 재정비하고 이방인에게 신선하게 접근하여 이교도와 관계가 증진되어 성도가 증가했다.

1347~1350년에 유행한 중세 대규모 감염병인 페스트는 유럽에서 2천만~3천5백만 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 페스트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붕괴시켰고 경제구조의 변화와 자본주의 탄생을 초래했다. 페스트는 당시 중세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사회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했다⁵⁾. 페스트는 르네상스와 같은 신가치관과 세계관을 추구하는 낙관주의를 가져왔다.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탄생되었고, 영국에서는 18세기에 국교회에서 감리교회가

3) 이현모 (2020), COVID-19 이후의 교회와 선교, 선교연구, 선교전략연구개발원, pp.17~19.

4) 안희열 (2020), 초대교회 시기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대한 평가, 선교와 신학, 제52집, p.62.

5) 최윤식 (2020), p.28.

설립되었다. 인류역사에서 대규모 감염병은 선교와 함께 전파되었고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감염병은 유럽인들의 남미와 북미에서의 식민지 정복과 선교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⁶⁾. 1918~1919년에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사망자의 11배 정도인 5천만~1억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인류역사에 1차 세계대전 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감염병 팬데믹은 당대의 시대적인 가치관 및 세계관을 크게 변화시켰다⁷⁾. 코로나19도 2020년에 교회를 포함한 국내외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지구촌에 대면사회를 비대면사회로 완전히 변화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을 이유로 교회현장(대면)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코로나19는 미래에 교회의 예배형태와 선교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진정으로 무엇이며 무슨 선교를 원하시는 지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의 감염병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교사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과 교회·선교의 현실

1)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교회의 위기

코로나19⁸⁾ 팬데믹은 인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전반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전개하여 비대면, 디지털로 대변되는 신세계를 탄생시켰다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 교회의 정상 예배가 중단되었고 교인의 출석은 줄었으며 교회모임도 금지와 허용을 반복하였다. 비대면 사회에서 현장 예배가 주로 유튜브(Youtube)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고, 영상예배 설교전달이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으로 변하였다.

한국 기독교인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대면 예배 2개 시점의 선호도 조사를

6) 이규대 (2020),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아시아 선교, 선교와 신학, 제52집, pp.107~108.

7) 이용언, 연합감리교뉴스 (2020.4.3.), <http://www.umnews.org/>

8)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편견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 지명이나 동물 이름을 피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2월 11일 'Corona Virus Disease 2019'를 줄인 'COVID-19'로 명명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글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약칭 코로나19)로 정하였다.

9) 계재광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 기독교 리더십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44집, p.154.

보면, 교회 대면예배가 온라인 예배보다 좋다는 반응은 4월 2일 54%에서 7월 19일 53%로 거의 유사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가 현장예배보다 좋다는 응답은 4월 2일 응답자의 9%에서 7월 19일 15%로 크게 증가했다. 7월 9일에는 교회현장 대면 예배가 허용된 것을 고려하면, 성도들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예배의 주일성수 중요성을 보면, 교회 대면예배로 주일 성수의견은 4월 2일에 응답자의 41%에서 7월 19일 기준 29%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로 주일예배 성수 가능성은 4월 2일 55%에서 7월 19일 기준 61%로 증가했으며, 동기간에 주일 성수에 대한 무관심도 오히려 5%로 늘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배형태 의향을 보면, 교회 현장예배 출석의향이 4월 2일 응답자의 85%에서 7월 19일 76%로 감소하였다. 한편 온라인 예배 참석으로 대체 하겠다는 의향은 동기간에 4%로, 교회 미출석 의사도 4% 증가했다.

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부분에서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신학적 논의와 상관없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이 되었다.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예배는 예배 전체의 실시간 방송 혹은 설교의 영상 공급방식으로 시행되고, 영상 설교를 위하여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영상예배는 일반적인 예배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¹⁰⁾.

〈표 1〉 코로나시대 온라인/대면 예배 선호도 인식

중요한 조사항목/ 조사시점		2020.4.2.	2020.7.19.	변화(%)
온라인 / 대면예배 선호도 변화추세	온라인 예배 < 교회 대면예배	54	53	-1
	온라인 예배 > 교회대면예배	9	15	+6
	온라인 예배 = 교회대면예배	37	33	-4
교회 대면예배 주일성수 중요성	교회 대면예배 주일성수 중요	41	29	-12
	온라인 예배 주일성수 가능성	55	61	+6
	잘 모르겠음, 무관심	5	10	+5
코로나19 종식 후 예배참석 형태	교회출석 대면예배 참석	85	76	-9
	온라인 예배의 참여와 대체	13	17	+4
	교회 미출석 가능성	2	6	+4

자료: 목회데이터연구소(2020.10.30.)

10) 손동식 (2020), 코로나19 시대와 효과적인 온라인설교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45집, pp.35~37.

2) 코로나19와 교회 신뢰도

교회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일부 교회의 현장예배 강행 또는 방역수칙 위반 등 일탈 행위로서 개신교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현상들은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를 떨어트렸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은 기독교 8개 언론기관과 함께 2020년 8.13~8.21 기간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국민의 기독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¹¹⁾. 조사목적은 코로나19가 한국 종교계에 미친 영향도 파악, 코로나19 전·후 국민들이 개신교에 대해 인식파악 및 개신교의 방향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종교별 신뢰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3%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자의 34.8% 반응이었고, “더 좋아졌다”는 반응은 1.9%에 불과했다. 개신교 신뢰도에 대해 ‘더 나빠졌다’는 응답 대다수가 19~29세(72.6%)의 젊은 세대와 학생(72.6%)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불교와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각각 86.8%, 83.0%에 달해 코로나19 이후 큰 신뢰도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부 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국민의 58.9%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도 종교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방역을 위해서는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의 60.6%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사회를 위해 가장 힘써야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 그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구제 및 봉사(49.6%)’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형교회들은 교회시설을 공공재로 개방하고 소형교회들은 섬김과 봉사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언론은 이단집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였다. 방역당국은 현장예배 감시자로 보였고 일부 교회는 강성발언으로 갈등을 자초했다. 이것은 교회가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안내지침을 만들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기인했다¹²⁾.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경로를 구축하지 못하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졌다.

교회행태에 대한 비난이 교회전체로 확산되었고 종교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현

11) 기독교신문, 코로나19 이후 개신교 신뢰도 급격히 하락, 2020.9.1. <https://www.kidok.com/>

12) 계재광 (2020), pp.172~173.

상도 발생한다. 일부 교회의 일탈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교계에서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독교 시민사회단체는 ‘교회 호소문’을 통해 몇몇 교회의 비상식적·반사회적 행동 및 일부 교회의 몰상식적인 대응으로 교회가 방역방해 집단으로 오해받는 것을 우려했다. 목회자들도 교회자체의 보호와 세상과의 소통 간에 균형 있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한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적인 평화구현에 있으므로 코로나19 사태에도 항상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3.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회·선교 영향

1)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회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운영의 핵심인 목회는 물론 교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친 영향들은 양면성이 존재하며, 성도공동체의 중요성 및 비대면 소통능력의 활성화, 교회사역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찰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¹³⁾.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기독교계의 대응은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이었다. 첫째, 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에서 교회운영 및 사역활동에 IT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예배, 모임, 활동 및 기타 사역에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는 건물 중심의 성전 교회관에서 성도 중심의 공동체 교회관으로 목회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코로나19로 기존의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균형 있게 중시하는 목회전환이 필요하다. 성도는 주중에 세상에서 생활신앙을 도모하는 선교적 삶을 영위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는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성직주의에서 성도의 소명과 은사를 이용하여 사역하는 유기체적 목회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는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는 집단 중심형 목회에서 개인에게 집중하는 질적인 목회로 변화할 것을 강조한다. 비대면 시대에 초개인화 및 다원주의 경향을 고려하여 개인 인격을 존중하는 목회가 소중하다. 여섯째, 코로나19는 교회의 내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목회적 경향에서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동선 공개 등은 합리적인 개인주의에 입각한 행동양식을 요구한다. 교회도 개별주의에

13) 최동규 (2020), pp.175~186.

서 탈피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공적사역을 증진시켜야 한다.

〈표 2〉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변화영역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소통기술	대면 소통기술의 중요	비대면 소통능력의 강화
교회관	건물 중심의 교회관	성도 중심의 공동체 교회관
교회모임	모이는 교회 중요	모이는 교회와 흠어지는 교회 균형
신앙생활	목회자 의존형 신앙행태	성도 책임형 독자적 신앙행태
목회사고	양적 성장의 집단중심의 목회	질적 성숙의 개인집중의 목회
사회관계	교회의 내적 역동성 강조	교회의 공적, 사회적 책임 완수

자료: 최동규(2020), 오현철(2020)

2) 코로나19의 기독교 선교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역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시행된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가 간 이동제한·금지 조치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사태는 기독교 선교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선교사역을 크게 위축시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소속 선교단체 선교사 47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24~5.4 사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선교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¹⁴⁾.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교사역이 위축됐다고, 12.2%는 선교사역의 기회가 열렸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거주 선교사에 대한 후원금의 변화를 보면, 응답자의 55.3%는 선교후원금에 변화가 없다고 나머지 41.3%는 선교후원금이 줄었다고 대답했다¹⁵⁾. 선교후원금 감소정도를 보면, 감소한 선교사의 48.1%가 20% 이상 후원이 감소했고, 심지어 후원이 80~100%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해외 귀국선교사의 63%는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고, 나머지 22.2%는 파송선교단체가 준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선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선교를 진전시킬 수 있다. 인간은 코로나19 시대에 한계를 느끼며 현실적인 불안정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복음은 성서적으로 인간의 환란과 박해에서 더욱 전파되었고, 선교 역사에 증거로 남아 있다¹⁶⁾. 교회가 선교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14)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20.5.).

15) 이현모 (2020), pp.20~22.

교회를 분산시키고 복음을 계속 전파시켰다. 기존 선교방식은 대면접촉을 통한 현장사역에 중점을 두어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래 비대면 사회의 등장 및 디지털 사회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인 선교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교현장에 남은 선교사는 현지인을 위한 긍휼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한 선교방법이다. 선교의 본질은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의 구원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한다(눅 19:10).

귀국 선교사는 코로나19 시대에 충전과 재교육을 통하여 준비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로 현지 의료체계의 열악, 정치사회적 안전망의 취약 및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귀국한 선교사가 많다. 귀국 선교사는 고국에서 숙소문제, 자녀교육 및 생활비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제 한국 교계가 귀국선교사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인간사회를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사회로 전환시켰다. 대면 사회에서 온라인 방식은 보완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가정·사회에서 필수적, 일반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인간사회는 비접촉과 비대면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방식으로 정착될 것이다. 코로나19는 한 순간에 모바일을 통하여 지구촌 많은 사람에게 의사소통하는 도구를 제공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의사소통하고 선교하는 디지털 통로를 개척된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기독교는 미디어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¹⁶⁾. 따라서 온라인 선교방식 및 전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수적,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표 3〉 코로나19 팬데믹의 선교에 미치는 영향

조사 항목	응답항목별 반응정도 (%)
코로나19가 선교사역에 미친 영향	사역 위축(80), 기회 열림(12.2), 영향 없음(7.8)
해외거주 선교사의 후원금 변화	종전 동일(55.3%). 후원 감소(41.3), 후원 증가(3.4)
코로나19 이후 선교후원금 감소 정도	20%미만 감소(51.9), 20~40% 감소(38.6) 40~60% 감소(8.2), 80~100% 감소(1.3%)
자가 격리 장소와 거처 마련방법	스스로 마련(63.0), 파송선교단체(22.2), 기타(9.0), 미해결(6.0)

자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20.5.)

16) 김은희 (2020), pp.109~113.

17) 정기복 (2013), p.89.

III.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내용

1. 선교 외부환경의 변화

1) 국제정치와 경제 분야

코로나19 시대에 선교정책의 과제를 도출 및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환경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선교의 외부환경은 국제정치 및 경제 분야 측면에서 변화요인을 파악하고 세부 변화내용을 진단할 수 있다. 국제정치를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정책으로 세계화는 약화되고 지역주의가 강화되며 국가도생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세계 주도권에도 변화가 생겨 미국 패권주의는 약화되고 중국 패권주의는 부각되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제 리더십도 국가방역대책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통치형태가 살아나고 국가독재 권력이 강화된다. 세계 현안과제에 대한 국제공조도 분야별로 이루어진다. 국제적인 연대협력은 갈수록 약화되며, 궁극적으로 자국 방역을 위하여 국가 간 이동도 더욱 제한한다.

경제영역에서 선교의 외부환경은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및 공유개념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가능하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경제도 실물경제와 금융을 포함하는 총체적 복합위기로 나타나며 경제공황은 장차 3~4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의료체계 분야에서 정신·심리상담 분야가 확대되고 원격진료시스템이 증가한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고 건강증진 대체식품이 대두되어 선호하게 된다. 부동산시장에서 에어 B&B 시장이 위축되고 재택근무의 증가로 사무공간은 축소되는 반면에 주택소유 욕구는 더욱 강해진다. 코로나19는 지구촌에 비대면 사회를 동반하여 공유개념도 변모시키고 있다. 이것은 대면 위주의 기존 사회관계를 급격히 변화시키며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화 사회를 신속하게 등장시킨다.

2) 정신심리와 교육사회 분야

정신·심리의 측면에서 외부 선교환경의 변화는 미래진로, 대인관계, 생사 및 가족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걱정과 공포로 자신감이 적어지며, 경험하지 않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불안해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미래·진로가 불안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자가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기피증이 증가하며, 낯선 사람에 대한 대면접촉을 꺼리고 사회적인 격리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난다. 삶과 죽음을 보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며, 중환자가 늘어나서 호스피스사역이 더욱 중요하고 인생후반부를 의미있게 보내는 시니어선교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가족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져서 가정사역이 활성화되고, 이혼가정이 늘어나거나 가정폭력이 많아질 수 있다.

코로나19는 교육체계, 온라인교육, 대안학교 및 일반사회 요인 등으로 전반적인 교육사회 환경에도 다양한 변화를 동반한다. 기존 학교중심의 현장 대면교육은 크게 감소하고 온라인 교육현장이 확대되어 기존의 대면 교육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 학교에 온라인 교육이 정착되어 가상교육체계가 확립되며 교육콘텐츠의 확보가 중요하고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대안학교를 보면, 코로나19의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가정학교가 증가한다. 또한 선교사자녀 대안교육이 필요하며 기존 학교교육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일반사회에서도 경제정의를 제도화하는 요구가 증대되며 시민사회운동이 더욱 활성화된다. 이것은 가정의 붕괴를 유발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3) 기술 환경 분야

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사회를 촉발시켜 사회 전 분야에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가 일반화되고 AI 기술이 산업 및 일상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ICT)기술이 격변하고 혁신되며,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이용하여 가상사회를 체험하게 만들 것이다. 코로나19는 도시·지역측면에서 도시에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초래하는 도시화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지방자치·지방화를 강화하며 고도 조밀개발보다 분산형 도시개발을 선호하게 된다. 지구촌에서 기후변화가 생겨서 기후난민이 발생하며 지구생태계는 파괴되고 지구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지구의 환경변화는 지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운동이 강화할 것이다.

〈표 4〉 기독교 선교 외부환경의 종합적 변화내용

분 야	변화요인	세부적인 변화내용
국제정치	세계화	세계화 위축, 지역주의 강화, 각국도생주의
	세계주도권	미국패권주의 약화, 중국패권주의 부상, 미중갈등의 심화
	리더십변화	국가방역대책 평가, 전체주의 통치형태, 국가독재권력 강화
	국제공조	국가 이동제한, 분야별 국제필요, 국제연대협력 약화

분 야	변화요인	세부적인 변화내용
경제영역	경제침체	경기침체 심화, 총체적 복합위기, 단기간 경제공황
	의료체계	심리상담 확대, 원격진료 증대, 백신/치료제개발, 건강식품 선호
	부동산시장	에어 B&B위축, 사무공간 축소, 주택소유 증가
	공유개념 변화	비대면 시대 등장, 기존관계 변화, 디지털사회의 전환
정신심리	미래진로	자신감 결여, 미지세계 불안, 미래 불확실성 증대
	대인관계	대인기피증 증가, 낯선 사람 불신감, 격리단절 두려움
	삶과 죽음	죽음 불안감 증대, 호스피스사역 필요, 시니어선교 중요
	가족관계	가정사역 중요성, 가정분리/폭력 우려, 가족관계 소중성
교육사회	교육체계	현장 대면교육 쇠퇴, 교육체계 붕괴변화, 온라인교육 확장
	온라인교육	가상교육체계 정착, 콘텐츠 확보와 연결, 교육콘텐츠개발/교육
	대안학교	가정학교 증가, 선교사자녀 대안교육, 학교교육의 위기
	일반사회	사회경제정의 제도화, 시민사회운동 증가, 가정붕괴, 소중인식
기술환경	기술영역	화상회의/AI기술 활용, ICT기술 격변혁신, 가상현실 실현
	도시지역화	도시화경향 약화, 지방지역화 경향, 분산형개발 선호
	기후변화	기후난민 발생, 지구생태계 파괴, 환경위기 심각
	환경변화	자원자원 중시, 환경보조운동, 쓰레기처리량 급증

자료: 조용중(2020.9); 정봉현(2020.11)

2. 선교 내부 환경의 변화

1) 교회·신학과 교회구조 분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교회 상황 및 신학 입장에서 교육신학, 주일예배, 교회 성전 및 종말론·이단 요인들로 인하여 다양한 내부환경이 변화한다. 교육·신학에 대한 정보는 증가했으나, 제자화가 약화되고 목회의 본질을 검토하게 만든다. 주일예배와 관련하여 주일 의미와 헌금문화가 변화하며 시설여건이 좋은 대형교회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교회성전을 보면, 교회론 및 성전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도전을 받으며 교회예배의 본질을 성찰하게 만들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미래가 불확실하여 종말론이 부상한다. 이단세력이 증가하며 인류의 말세 징조에 대한 해석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교회구조의 분야에서 선교 내부환경의 변화는 성도구조, 교회재정, 목회사역 및 교회규모 등의 요인별로 파악할 수 있다. 교회 내부의 성도는 소수의 헌신된 성도와 가난한 성도로 이분화가 가속화되며, 총교인수가 감소하고 더욱 고령화된다. 성도 감소와 경기악화로 인해서 교회재정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여건도 취약하다. 이것은 소수 성도에 대한 교회재정 의존도를 증가시킨다. 목회자 감소 및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지역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목회사역도 담임목사 개인 중심보다 전문성을 강조하는 팀목회를 지향하며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상담 목회 사역이 더욱 중요하다. 교회규모를 보면, 교회의 본질과 기능이 상실된 건물 위주의 대형교회들은 줄어들고 온라인 교회시스템에 취약한 미자립 소형교회들은 몰락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신학생이 감소하여 양질의 목회자 양성에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평신도 사역이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교회건축과 성도증가 중심의 교회의 개척 및 성장전략을 재고하게 만든다.

2) 선교신학 분야

선교신학 분야에서 내부적 환경변화는 선교학, 선교재정, 선교사변화 및 선교전략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선교학 입장에서 교회론도 건물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개척에서 성도·가정 기반의 교회개척으로 시각이 확장될 것이다. 선교사 개념도 과거 장기파견 목회선교사 위주에서 자비량 평신도 전문선교사로 확대되고 선교역할도 변할 것이다.

선교재정을 보면, 교인수 감소와 교회재정의 약화로 선교후원비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선교재정을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선교비 모금방법도 강구한다. 선교사 개념과 역할의 변화하여 현지 파견선교사는 감소하는 반면에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는 증가할 것이다. 해외 현장선교에 대한 기반이 붕괴되어 해외선교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해외 및 국내 선교사 간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지 않다. 선교전략도 비대면 선교역량을 강화하며, 개인관계를 통한 복음전파가 활발할 것이다. 대면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리상담선교가 증가하며 창의적인 시니어 및 자비량 선교전략도 개발될 것이다.

3) 선교여건과 선교방식 분야

선교여건의 시각에서 선교 내부 환경의 변화는 이주민선교, 파송감시 및 선교자원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자리 감소로 국내 거주이주민은 감소하며, 해외 귀국선교사가 증가하여 국내 이주민선교 전략을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동역·협력선교를 지향하며, 창의적인 역선교 전략 및 이주민 전문선교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파송감시체계를 보면, 선교사에 대한 국가별 이동감시가 강화되어 소수 선교사가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교사도 NGO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하여 파송하며, 이것은 비즈니스 전문선교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선교자원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선교사에 대한 개념

도 변화하며 선교비 확보대책과 선교자원의 확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동역사역 역량을 증대하며 기존 현지선교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발전시킨다.

선교방식의 시각에서 선교 내부 환경 변화는 선교사역할, 직접조력선교 및 선교훈련의 요인을 중심으로 내다 볼 수 있다. 선교사의 역할은 기존의 현지 직접선교에서 간접선교로 변화하고 있다. 즉, 현지사역자를 위한 멘토링사역 혹은 코칭사역을 수행하며 전문영역 선교전략개발 및 격려자로서 현지선교를 위한 구호사역 및 자립형 선교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선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선교활동이 위축되어 장기선교가 단기선교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대면 선교전략과 협력선교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선교훈련도 기본적으로 선교학을 교육하고 자립형 및 팀선교사역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교교육에서 선교지 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 선교사 연장교육 등의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표 5〉 기독교 선교 내부 환경의 종합적 변화내용

분 야	변화요인	세부적인 변화내용
교회신학	교육신학	정보의 증가, 제자화 약화, 목회의 본질 성찰
	주일예배	주일의미, 가정증가, 현금문화 변화, 대형교회예배 선호
	교회성전	교회론 의미, 성전의미 도전, 교회예배 본질
	종말론세상	이단세력 증가, 종말론의 부상, 말세징조 해석증가
교회구조	성도구조	소수헌신자 증가, 가나안성도 증대, 교인감소와 고령화
	교회재정	재정수입감소, 소수성도 재정의존, 사역자 영향력 감소
	목회사역	담임목사 역할축소, 전문 팀목회 지향, 상담목회사역 증가
	교회규모	대형교회 감소, 소형교회 몰락, 교회개척 곤란, 신학생감소
선교신학	선교학	교회론 재정립, 선교론 의미해석, 선교사 재정의
	선교재정	선교후원비 급감, 재정모금 다변화, 온라인선교모금 증대
	선교사변화	현지선교사 감소, 전문인 선교증가, 선교불확실성, 선교사구분
	선교전략	비대면 선교증대, 개인관계 전도, 상담사역, 시니어·자비량선교
선교여건	이주민사역	이주민감소, 귀국선교사 증가, 동역사역, 역선교전략, 전문사역
	파송감시	선교사 이동감시강화, 비즈니스선교기획, NGO/국제기구 선교
	선교자원	창의적 선교전략, 선교재정 확보방안, 국제협력, 기존자원이용
선교방식	선교사역할	지원선교, 멘토링사역, 선교격려, 구호사역, 자립형 전문선교
	직접조력선교	장기선교사역 감소, 중단기선교 증가, 비대면 선교, 협력선교
	선교훈련	선교학, 자립형선교, 팀선교, 현장기술, 현장선교연장, 동역사역

자료: 조용중(2020.9); 정봉현(2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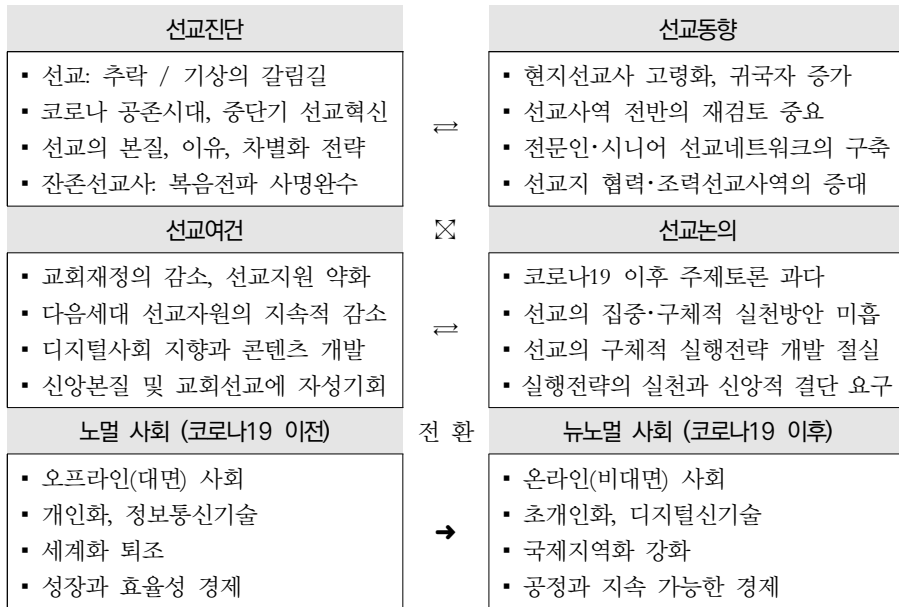
3. 코로나19 시대 선교 여건·진단과 선교동향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 선교는 추락하거나 다시 부상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의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종식은 사실상 어렵고 인류와 영원히 공존하는 유행성 풍토병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투약되어도 영구적이며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 19의 방역을 위해서는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가간 이동제한 대책들이 필수적이며, 이것들은 인간생활의 기본활동인 소통, 대면접촉 및 이동을 위축시키며 제한하는 조치들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공존시대에 대면, 소통과 이동을 통한 선교활동과 사역에는 엄청난 변화와 제한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향후 1~5년 정도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혁신적인 선교전략이 개발과 실행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이것은 기존의 선교의 본질과 이유를 성찰하고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차별화된 선교전략들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인류사회의 남은 선교사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선교여건을 진단하며 교회재정이 점차로 감소하여 종합적인 선교지원과 선교사 파송이 약화되고 있다. 다음 세대의 선교자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기존 선교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어 귀국 선교사들도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사회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디지털 선교콘텐츠를 개발하고 디지털 전문선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성찰하고, 기존 교회선교활동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여건 하에서 코로나시대 선교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해외 거주 1세대 장기선교사는 고령화되어 급변하는 선교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며 선교사역에도 제한이 생긴다. 장기 해외선교사가 고국에 귀국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현진 선교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한국의 해외 선교전반을 다시 검토해야할 중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선교 동원과 지원을 위한 전문인·시니어 선교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상기한 선교여건의 진단과 선교동향을 종합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선교동향을 논의하는 것이 소중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기독교 전반에 대한 영향과 방향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과다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교에 집중하여 선교의 구체화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여 선교의 구체적인 실행전략들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선교의 실행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과 기도가

이제는 아주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 선교 진단·여건과 선교동향·논의 관계

IV.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선교정책의 과제

1. 코로나19 시대의 선교 미래

코로나19로 기독교 선교의 제3기에서 중심인 미전도 종족 개념의 선교가 현재보다 약화된다. 교회의 미래 선교는 종교와 종교 간 선교, 세대와 세대 간 선교, 글로벌 이주현상에 따른 선교, 난민선교 등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 선교영역에서 공간적 거리 개념이 약화되고 국내 및 해외 선교 간 개념적인 경계가 모호하며, 대면과 비대면 선교개념이 등장한다. 이제 한국교회도 미래 10년 자세히 전망하여 선교전략을 개발하고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사회 디지털화 경향은 선교에서 공간적인 거리 개념을 없애고 있다. 교회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코로나19는 기독교의 창의적인 선교를 활성화시켜 선교의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촌의 인류사회를 디지털 도로, SNS

소통 및 가상공간에 거주하도록 종합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해왔다. 전 세계의 80% 이상은 언어 장벽, 문화적 충격, 공간을 극복한 선교참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 더 이상 가상공간은 허구가 아니며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를 수행해야 하는 신세계이다. 미래의 거대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이며 새로운 생명세상을 창조하는 공간이다¹⁸⁾.

따라서 선교는 기독교의 존재 이유와 본질로서 코로나19 이전 및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사명과 사역이다.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도 선교이다.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성찰하며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지상 대명령(마 28:18~20)과 지상 대계명(마 22:37~40)은 시대적 상황에 무관하게 한국 교회가 마땅히 수행하는 교회의 본질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선교의 본질을 감당하면, 교회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더욱 명확해진다. 비대면 사회를 초래한 코로나19 시대의 특징들은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가속,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 가족공동체와 다음 세대의 위기 및 선교적 동력의 위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⁹⁾.

2.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선교사역적 과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총체적인 변화와 공포감을 주는 글로벌한 성격의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지구촌의 경제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도 근본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²⁰⁾.

1) 교회 공공성의 회복과 강화

교회 공공성은 일반 교회가 일반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어 있는 성질이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핵심 집단이다. 교회 공

18) 이현모 (2020), pp.26~27.

19) 크리스천투데이 (2020.7.20.) <https://www.christiantoday.co.kr>

20) 김기태 (2020), pp.60~67.

공성은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이며, 교회 존립의 기본가치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공공성이 부족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세상에 위로와 치유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일부 교회 및 기독교 단체는 당국의 방역조치를 경시하여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보여졌다. 극소수 언론과 반기독교단체는 교회의 사례를 침소봉대하고 부정적 모습을 부각시켜 교회를 독선적인 이기집단으로 사회에 비추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대다수 교회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했다. 코로나19로 곤경에 빠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발원지로 부각되는 사회적인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한국 교회가 공공성의 강화에 최선을 다했으나, 여전히 교회의 변화와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²¹⁾.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소중하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2) 사회적 소통능력의 제고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요성을 알게 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세상과 대화가 적고 개별교회 사업에 집중하여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 교회는 세상이슈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내부문제 해결에도 소극적이어서 사회적 비난을 자초했다. 극소수 교회지도자는 위정자의 부패와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연관되어 있어 비판을 받았다. 일부 신학대학과 교회들의 분쟁, 재정 비리 및 부도덕한 행태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기독교가 부패와 비윤리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교계는 기존 교회와 활동에 집착하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처 및 대사회적인 메시지 제공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회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도 급급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는 방역당국과 협력하며 감염병 방역조치에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한국교회가 현실적으로 감염병종합계획의 수립에는 소홀했다. 한국 교회들이 대언론 소통창구가 부족하였고, 전문가를 활용한 세부적인 실천전략들도 미흡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구제사업 및 거룩한 세상을 위한 선교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교회의 참 모습

21) 이종원 (2020), pp.82~83.

을 세상에 알리는 노력도 부족했고, 훌륭한 사회공헌자의 기록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사업도 경시했다.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데 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한 선한 도구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메시지이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와 기독교단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하며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가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세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의 외부환경은 경제, 사회문화, 기술 및 방역적인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다. 교계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사회적인 의제발굴과 성서적인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회도 자성하여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퇴출시키는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신과 가치를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세상에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세상문제에 대한 조언자로서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소통능력은 시대적인 공적 의제에 대하여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진정한 교회모습에서 증진된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²²⁾.

3) 이단집단 종합 근본대책의 마련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3월에 한국 사회는 적나라한 ‘신천지’ 이단집단의 실체를 목격했다. 상당수 교회는 신천지의 교활하고 공격적인 포교활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에 신천지 집단의 교인수가 급증하고 교세도 국내외적으로 신장되었지만, 교계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신천지 집단은 삼시간에 코로나19의 집단발병지로 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의 감염세를 크게 확장시켜 한국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신천지 집단의 상당수가 젊은 청년으로서 기존 교회에 대한 회개와 성찰이 요구된다. 이것은 교회가 청년층 등 다음세대 사역에 소홀한 데 기인한다.

다음세대 사역은 기본적으로 이단대책을 위한 사역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계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이단집단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다. 교계는 이단집단에 대한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정확한 판별기준을 작성하고 공유해야 한다. 전통 교회와 이단집단 간 차이점을 사회적으로 공포하고 삶으로 말씀을 실천

22) 이종원 (2020), pp.82~83.

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길은 기존 교회와 이단 간에 차별화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사회에 분명히 투영해야 한다. 저출산 및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역정책에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의 변화와 요구를 분석하여 청년사역을 혁신시키며, 청년사역자를 더욱 육성해야 한다.

4) 가정의 회복과 가정사역의 강화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며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은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가정학습, 식사준비 등 산실로서 가정의 중요성과 식구들의 역할을 체험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와 갈등,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으로 불편과 스트레스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평소와 다른 가정생활과 가정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정이 포변화된 사회에서 최대한 안전의 생활공간이라는 점을 알게되었다²³⁾. 이것은 가정생활의 소중함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목회와 선교의 관심영역은 가정사역이다. 가정은 성경적인 신앙과 통전적인 신앙생활에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다. 가정은 학교, 교회와 더불어 신앙형성과 실천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최근 교회학교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선교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부흥기에는 가정예배가 활성화되었던 사실을 발견한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하며,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회복과 직결되며, 교회의 장래를 좌우하는 지렛대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부흥은 단순히 사역자·교사의 헌신보다 근본적으로 가정의 예배·교육에 달려 있다. 비대면 시대에 교회의 장래 부흥은 근본적으로 가정신앙의 성장·성숙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도 다양한 가정사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족식탁은 가족 신앙교육의 기회를 찾는 기회이며 현장이다. 신앙교육은 교회와 가정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전인교육이기 때문이다²⁴⁾. 교회가 가정사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 체계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 가정사역을 위하여 맞춤형 기독교 부모 교육, 교회학교와 가정의 연결, 가정사역 전문가의 육성 및 가정예배 콘텐츠 개발 대책 등이 절실하다.

23) 최동규 (2020), pp.190~191.

24) 이은경 (2020), pp.310~312.

5) 미자립 소형교회의 지원 확대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개척교회, 농촌교회 등 미자립교회에 고통을 가증시켰다. 미자립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장비도 없어 예배를 중단하고 성도가 감소하며 극심한 재정 압박에 시달렸다. 한국 교회들이 개교회 혹은 교단 차원에서 미자립교회를 도왔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미자립교회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의 미래는 다양한 수준과 성격의 작은 미자립교회의 부흥에 달려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계층, 연령, 지역, 직업 및 인구구조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맞춤형 교회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성도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지역교회가 증가할수록 건강해진다. 담임목사가 성도를 세심하게 돌보고 교회사역과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최대교인수는 약300명 정도이다. 대형교회에서는 성도 간 교제가 부족하고 성도 각자가 보이지 않는 군중교회로 전락하게 된다. 친밀한 교제와 관계는 성도 각자의 영적 상태를 보살피고 지속적인 영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코로나19는 한국 교계에 작은 미자립교회 부흥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었다. 물론 다수 교회가 선교·구제차원에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세상의 경제 논리가 작동되고 있다. 세상속의 교회, 교회속의 세상이 되어 버린 모습이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풍자도 있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계가 세상 논리로 생존이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생명의 논리로 지원하여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6) 생활신앙의 성숙도 향상

코로나19는 성도에게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영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웅장한 교회에서 통성 기도 및 찬양하는 모습이 성숙하고 건강한 영성으로 보였다.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현장에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과 유리된 일상생활은 이중적인 성도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 교회는 성도의 건강한 삶과 영성 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교회에서는 건강한 성숙한 영적 신앙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목회자는 성도의 건강한 영성을 위하여 기도, 말씀공부, 구제, 친교, 찬양, 헌금 및 교회생활 안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성도의 영성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생활신앙과 영성

의 성숙도를 제고하는 시점에 있다²⁵⁾.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여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교회 활동이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 동안 자연스럽게 당연시되던 교회 활동과 모임들이 중단되었다. 교회 어린이도 온라인 교회학교를 경험하는 색다른 기회도 가졌다. 이것은 교회 활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란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으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부정적인 식견도 존재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부터 코로나19의 팬데믹 세상속에서 신앙의 성숙성과 건강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장래와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배당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생활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목회자가 먼저 신앙과 삶의 이원화를 극복하는 통전적 신앙을 이해하고 설교와 가르침에 담아 내야 한다. 교회에서 통전적인 신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7) 재택·원격근무·재택수업 방식의 선교분야 활용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선교사들은 대규모 국가·지역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부득이 재택·원격 근무를 하였다. 원격근무의 한 형태인 재택근무는 안전한 근무장소가 주택으로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재택근무는 선교사에게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가 된다. 선교사 및 가족은 ICT기술을 이용하여 선교사역과 자기개발에 투자한다²⁶⁾. 안식년으로 한국체류 선교사가 현지 학교 및 선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강의·세미나에 참여한다. 원격근무의 장점을 이용하여 본국-선교지 선교사역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장기간 선교지를 이탈해도 원격근무로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재택·원격 근무는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근무수단이며 요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통기술과 프로그램들이 크게 활용되어 선교사에게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거리 해외선교사들은 고국교회의 예배참여, 설교청취 및 강의참석을 대단히 선호한다. 선교지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선교사 혹은 장애·고령 선교사는 건강과 안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격·재택근무로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중대질병 혹은 기저질환의 선교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강관리와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재택·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오지

25) 최동규 (2020), pp.191~192.

26) 이규대 (2020), pp.124~125.

선교사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상당한 격려가 된다. 의료진이 화상회의(Zoom)로 선교사와 대화하며 간단한 진단기구·키트를 이용하여 제한적인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면,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현장 선교사들은 정보통신기술(ICT)에 익숙하지 못하며 사용 준비도 부족하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은 한국에서 일상화되었지만, 타국 선교사들은 아직도 낯설고 경험도 없다. 선교사 간 사역업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도구도 개발해야 한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한국 교회는 해외선교사를 위한 ICT능력 강화와 선교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택·원격근무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8) 성육신적 선교의 실행

한국교회는 과거에 선교활동에 열심이였으나, 사회적인 신뢰도는 저하되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비유되어(마 5:13~16)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연결되어 이해하고 연대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활동도 중요하나,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더욱 소중하다. 코로나19는 교회 선교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구두 복음전파와 사회봉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선교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기독교 구두 선교활동에 매우 저항적이므로, 사회봉사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경우에 시민사회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진다. 오늘날 성도의 삶의 행태가 불신자와 다른 경우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하며 수용성이 높아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선교는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 선교가 절실하다. 성육신적 선교의 과정은 이해-연대-책임적 행동이란 3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통으로 실천된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도 실천해야 한다.

3.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선교전략적 과제

코로나19 대유행병의 방역대책에서 대표적인 공통점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으로 대면접촉의 최소화와 비대면 방식의 일반화에 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사회를 촉발시켰고 교회의 사역활동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선교는 텍스트(Text: 말씀, 복음)와 문맥(Context: 상황, 문화)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문화 속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문화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대면 접촉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파 방법이었다. 지금 대면방식의 선교는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받고 있다. 기존 선교는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비대면 사회에서는 기존 선교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선교는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적인 사명이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지상 대명령(마 28:18~20)과 지상 대계명(마 22:37~40)은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기본사명이다. 코로나19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의 존재이유가 명확해진다²⁷⁾.

1) 비대면 시대 On & Off line 사역 교회

코로나19가 사회에 가져온 비대면 문화는 종전의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을 크게 변모시켰다²⁸⁾.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인간관계를 벗어나서는 사실상 선교사역은 불가능하다. 과거에 교회공동체의 기본 관계는 대면접촉을 통한 인간관계에 있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을 선호하는 생활방식은 교회의 복음전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비대면 사회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선교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접속과 대화가 가능한 비대면 디지털 공간으로 진입되어 있다. 근본적인 문화는 제4차 산업 시대에 발전한 디지털 기술발전과 연동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사회의 규범과 미래의 생활방식에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비대면 사회가 전반적인 사회체계를 변모시키고 있다. 교회도 비대면 사회에서 전략적인 문명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성도의 54%는 온라인 예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19%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온라인 예배가 지속된다고 전망했다. 교회도 유연적인 목회선교 사역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도의 인식도 변하며 영적인 유연성도 개발되어야 한다. 교회의 하드웨어시스템도 이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한국교회는 디지털문화와 온라인 네트워크가 주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성도의 교회공동체 소속감을 고양하며 선교를 극대화하는 실천방안을 개발하고 목

27) 황덕영, 선교신문, 2020.7.15., <http://missionnews.co.kr/>

28) 김응혜 (2020), pp.241~248.

회·선교사역에 적용해야 한다.

2) 디지털·아날로그식 공동사역

코로나19 이전에 목회·선교 사역에서 아날로그 바탕 위에 디지털기법의 활용을 고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사역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사회에 접목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성의 유지는 현장목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성과 감성을 교류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어도 디지털 기술에 치우친 목회적 냉랭함을 경계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담아내는 목회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공동체적 감성을 유지하도록 교회의 현장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²⁹⁾. 단순히 온라인으로 디지털 상에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연속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제목을 계속 교환한다. 교인가정에 대한 디지털 심방 이후에 드라이브스루를 통하여 아날로그적 비대면 심방을 이어간다. 따라서 교회사역에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활동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세대에게 아날로그적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교회가 감당할 시대적 사명이며 시급한 과제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과거 상태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며 예배, 선교와 성도 교제를 최소화하면 교회의 존재가치가 소멸되고 심각한 영적 재난에 빠진다.

코로나19 사태를 회복의 시간, 선교사역의 전환시기로 인식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 교회발전의 방향이다. 코로나19 시대에는 대면과 비대면,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들며 대면접촉 및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개인신앙 및 사회의 공적 영역까지 디지털 및 아날로그 간 소통공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³⁰⁾. 이제 코로나19 이상의 사태에서도 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교육 및 선교를 수행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³¹⁾.

3) 다음세대 중심 가정사역의 교회

교회 온라인 예배는 기존 프로그램 형식에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설교내용을 전하는 획일적인 방송에 치중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을 담아서 전달하고 교회의 현

29) 이규대 (2020), p.122.

30) 김은혜 (2020), pp.263~265.

31) 이은경 (2020), pp.304~306.

장감을 감성적으로 표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예배도 중대형 교회에서 주로 실시되며, 소형 미자립 교회는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장소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출발점과 중심지가 되도록 목회적 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심지는 교회학교 보다 주간의 가정이다. 가정의 회복이 교회가 살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하는 기반이다.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문화의 확산으로 자녀들은 교회 및 학교보다 주로 가정에서 생활한다. 교회는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지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교육주체를 교역자에서 부모로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 가정교육의 최일선에 있으므로 가정공동체의 재발견이 절실하다. 교회는 가정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범적인 가정예배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예배는 장년 및 다음 세대 간 연결통로로 작용하며 부모가 자녀신앙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육 현장의 목회자는 부모 및 자녀세대의 목양을 동시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목회자도 성도 명단을 가족 구성원 위주로 재구성하고 가족을 위한 목양활동을 전개한다.

4) 교회 디지털 선교역량의 제고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었다. 디지털은 인간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므로 교회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요한 교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 온라인 소통, 온라인 예배라는 소통수단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한 방역 대책은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예배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직장·단체에서 온라인 회의, 시장에서 온라인 가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라인예배가 시행되었다. 물론 교회사정에 따라 온라인 예배의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 예배를 병행하게 될 것이다. 대형교회들은 대면 상황에서 진행하던 각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비대면화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예배, 구역모임, 남녀선교회, 기도회, 선거, 토론회 및 성경공부 등이 일반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 교회는 바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이용 안내지침을 작성하여 배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어도 온라인을 통한 소통 또는 예배 경험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성도에게도 교회의 예배·모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사항을 공지하여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소통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전문 인력의 확보가 힘든 교회에는 자원봉사 인원을 사전에 선발하여 관련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5) 교회론과 제자도의 재발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 현장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 형태를 자연스럽게 1인 혹은 소모임 예배로 탈바꿈시켰다. 개인이 교회가 되며 개인의 체류장소가 예배당이 되었다. 성도가 머무는 가정·직장·사업장·학업 현장 등 모든 공간에 대한 교회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교회론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제시된 제자도는 복음전파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성도는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근무하며 모든 지역·세대·영역으로 나아가는 통전적 제자도가 요구된다. 기존 교회는 성경적으로 모이는 교회론에 사역을 집중했다. 이제 전통교회의 제도를 시대적 소명과 상황에 따라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벗어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흠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묻어둔 크리스천의 달란트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육성하여 파송해야 한다.

6) 해외 거점·토착화 선교방식

기존 해외선교는 선교지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여 파송선교사가 대면 접촉을 통해 현지인화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전통적 선교방식은 선교사가 해외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인과 대면 접촉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비대면 사회라는 새로운 문화에 직면했다. 선교사가 직접 다양한 문화 속에 들어가 살면서 기존 대면방식의 해외선교는 더욱 힘들게 되었다. 오늘날 대면선교가 아닌 보편적 인류문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화와 상생, 조력과 협력에 기반을 둔 비대면 선교방식도 필요해졌다³²⁾.

따라서 선교사가 거점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대면 접촉만을 하는 거점선교 방식이 요구된다. 거점 선교는 비대면 문화 속에서 목표가 명확하고 필요하여 소중한 인적자원을 단기간에 극대화시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거점 선교는 선교의

32) 김유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교, 연합감리교회뉴스, 2020.6.29., <https://www.umnews.org/>

다양성과 집중성을 제공한다. 해외 장기선교 프로젝트는 점차적으로 현지인 선교사에게 이양해야 한다. 선교사 파송교회는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현지선교사와 정기적으로 만난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현지선교사에게 필요한 영적, 신학적, 물질적 자료를 제공한다. 이것은 파송선교사보다 현지인 선교사가 주도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토착화 선교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다.

7) 해외 지원선교 역할의 강화

기존 선교방식은 개별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사명으로 인식되었다. 코로나19 시대에 선교는 개별 교회보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지원선교로 전환해야 한다. 교회의 역량은 종종 선교사 파송선교사 혹은 선교지원국가 규모 등으로 여겨져서 선교가 교회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따라서 해외선교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선교를 지양하고 해외선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구축한 기존 해외선교를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교회 주도 선교보다 여러 교회가 동역하는 지원선교가 절실하다. 교회 선교도 개교회 중심에서 협력적인 지원선교의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개별교회가 혼자 감당하기 곤란한 다선교 분야(구제, 교육, 의료, 구호 등)를 한국 교계 혹은 선교단체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다. 기존의 새로운 선교시장의 개척보다 기존 선교를 네트워크화하여 선교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8) 선교현장의 국내영역 확대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가 간 이동제한은 급격한 비대면시대의 등장과 디지털사회의 전환을 촉진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 파송선교사는 귀국하였고 외국들은 선교사 상시감시체계를 강화시켰다. 상당수 국가들은 예배·모임을 금지시켰으며 통행제한으로 선교사의 자가 격리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선교사는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마트와 거리에서 신변의 위협을 경험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구촌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시대적 여건에 맞춘 범세계화(glocalization)시대에 살고 있다. 이전보다 다인종 및 다문화 사회의 등장으로 지구촌에서 세계(global)와 지역(local)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주된 선교현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는 인식 전환은 물론,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무조건 외국에서 대면접촉의 선교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 지역사회도 중요한 선교대상지이다. 국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대면, 탈대면 선교방식을 강화하고 선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 사정과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온라인 성경공부반을 개설하고 구호 및 구제사역을 증대시킨다. 귀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선교현지에서 습득한 언어와 문화를 활용하여 국내 이민자사역을 활성화시킨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사고범위를 흔들며, 기존의 사고방식과 생활자세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풍토가 사라지고 있다. 선교사역도 기존의 해외 파송선교사 위주에서 선교적 시각을 지역사회에 돌리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존 선교방법과 전략을 제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변의 진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설정한 최소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역과 임무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신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비대면 사회에서 하나님의 대사명은 더욱 완수되어야 한다.

〈표 6〉 코로나19시대에 기독교 선교의 장래과제

영역	세부적인 선교정책의 과제	
시대적 특징	-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가속 -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	- 가족공동체와 다음 세대의 위기 - 선교적 동력의 위험
선교사역	- 교회 공공성의 회복과 강화 - 이단집단 종합 근본대책의 마련 - 미자립 소형교회의 지원 증대 - 재택·원격 근무방식의 선교활용	- 교회 사회적 소통능력의 제고 - 가정의 회복과 가정사역의 강화 - 성도 영적 신앙의 성숙도 향상 - 성육신적 선교의 실행
선교전략	- 비대면 시대 on & off 교회사역 - 다음세대 중심 가정사역의 교회 - 교회론과 제자도의 재발견 - 해외 지원선교 역할의 강화	- 디지털+아날로그식 공동사역 - 교회 디지털 선교역량의 제고 - 해외 거점·토착화 선교방식 - 선교현장의 국내 영역 확대

자료: 정봉현(2020.1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선교환경의 총체적인 변화내용을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선교사역 및 전략의 입

장에서 기독교 선교정책의 과제를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들은 서론, 코로나19 감염병과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 선교환경의 변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선교정책의 과제,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02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220개국에서 약78,549천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1,743.4천 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56,872명의 확진환자가 생겼고 총사망자는 808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1주간 일평균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쏟아져서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하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 심각한 타격과 악영향을 초래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을 유발하며, 미래에도 종식되지 않고 인류역사와 영원히 함께하는 계절적인 풍토병으로 정착될 수 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 현장예배와 활동이 금지·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은 전통적인 교회 예배와 모임의 대면접촉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환경에 총체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비대면 선교사역과 디지털 선교역량을 강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선교사역의 입장에서 선교정책의 과제들은 교회 공공성의 회복과 강화, 교회 사회적 소통능력의 제고, 이단집단 종합 근본대책의 마련, 가정의 회복과 가정사역의 강화, 미자립 소형교회의 지원 확대, 생활신앙의 성숙도 향상, 재택·원격근무, 재택수업 방식의 선교분야 활용, 성육신적 선교의 실행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교전략의 측면에서 선교정책의 과제에는 비대면 시대 on & off line 교회사역, 디지털·아날로그 공동사역, 다음세대 중심 가정사역의 교회, 교회 디지털 선교역량의 제고, 교회론과 제자도의 재발견, 해외 거점·토착화 선교방식, 해외 지원선교 역할의 강화 및 선교현장의 국내 영역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계재광, 포스트코로나시대, 기독교리더십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44집, 2020.6., pp.153~178.
- 김기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에 바란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 자료집, 서빙고온누리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0.6.15. pp.60~67.

- 김은희,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대처에 관한 연구: 예배와 선교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53집, 2020.10, pp.99~122.
- 김은혜, 비대면 문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 :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계적 목회의 가능성, 선교와 신학, 제52집, 2020.10., pp.237~269.
- 다나반두 만첼라, 팬데믹 세계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확언과 실천: 멈추어 생각하기, 선교와 신학, 제52집, 2020.10., pp.15~38.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신앙생활/인식 변화, Numbers 제69호, 주간리포트, 2020.10.30.
- 성석환, 코로나19시대 뉴노멀의 윤리적 가치로서 공동의 선과 한국교회, 기독교사회윤리, 제47집, 2020, pp.139~169.
- 손동식, 코로나19 시대와 효과적인 온라인 설교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45집 특집논문, 2020.9., pp.33~60.
- 신경규, 현대의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동향, 대학과 선교, 제42집, 2019, pp.237~266.
- 안희열, 초대교회 시기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대한 평가, 선교와 신학, 제52집, 2020.10., pp.39~69.
- 오현철, 뉴노멀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제57권, 2020.10, pp.117~144.
- 이규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아시아선교, 선교와 신학, 제52집, 2020.10, pp.103~138.
- 이은경, 언택트 시대의 예배와 신앙교육-비대면을 넘어 다면교육으로, 기독교교육정보, 제66집, 2020.9., pp.295~322.
- 이종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대학과 선교, 제45집 특집논문, 2020.9., pp.61~90.
- 이현모, COVID-19 이후의 교회와 선교, 선교연구, 선교전략연구개발원, 2020.9, pp.16~27.
- 정기목, 제3차 로잔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타난 미디어 선교와 한국교회의 전략, 복음과 선교 제22집, 2013.6., pp.83~111.
- 정봉현,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적 정책과제, 종교문화연구소 하반기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전남대학교, 2020.11.3.
- 조용중, 코로나19 시대의 선교, 시니어선교한국 온라인 글로벌컨퍼런스 발표자료,

시니어선교한국, 2020.9.3.

최규명, 교양으로서 선교와 교육의 관계적 접근, 신학과 복음, 제8권, 2020.6.,
pp.117~149.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제52집, 2020.10,
pp.171~200.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코로나19 이후 선교사 설문조사자료, 2020.5.

Abstract

Changes in Christian Missionary Environment and Policy Issues in the COVID-19 Pandemic Era

Bonghyun Jeong

(Dr.,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overall changes in the Christian missionary environment based on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ID-19 pandemic infectious disease and Christianity, and to devise issues for Christian mission policy based on thi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consist of an introduction, an understanding of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and Christianity, changes in the Christian mission environment, and policy issues of Christian mission in the COVID-19 pandemic era and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pandemic era can be explained by the advent and acceleration of a non-face-to-face society, the acceleration of digital oriented society, the crisis of family community and next generation, and the danger of missionary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ministry in the COVID-19 pandemic era, mission policy issues are the recovery and strengthening of church's publicity, preparation of comprehensive basic measures for heretical groups, increased supports for non-independent small churches, enhancing the church social communication skills, and restoring family ministry. It has been suggested as strengthening of spirituality and improving the maturity of spiritual faith of believers. In terms of strategy, mission policy issues in the COVID-19 pandemic era include non-face-to-face church ministry in the era of on & off, the church's family ministry centered on next generation, the rediscovery of ecclesiology and discipleship, the reinforcement of role of overseas supporting mission, the digital and analog jointed church ministry. It can be explored by enhancing the digital mission capacity of the church, the overseas bases' indigenous mission methods, and the expansion of domestic mission field.

Key words: COVID-19 pandemic, Christian mission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Changes in Christian missions environment, Policy issues of Christian mission

